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 키운다

인천백학초 '백학 다모임 리더십 캠프'

인천백학초등학교(교장 고준범)는 5월 19일 백학 다모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백학 다모임은 전교어린이 회장, 부회장들과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해 있다.

리더십 캠프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행사로, 학교와 각 학급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하려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리더십 캠프는 '우리는 소·중·성 리더들!'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실시했다. 캠프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시간부터 시작돼 총 3교시로 나눠 실시됐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소통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경청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왔다. 두 번째 시간에는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협동과 긍정, 자기조절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협동해 종이컵 탑 쌓기를 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성공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리더메달을 만들어 왔으며 잠정선언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강점에 대해 탐구했다.

백학 다모임 학생들은 리더십 캠프를 통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강점을 토대로 미래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리더십 캠프라고 해서 지루하고 따분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면 잘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백학 다모임 학생들은 리더십 캠프를 통해서 배운

역량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인천백학초교는 앞으로도 백학 다모임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준비해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인용성 기자 as@**

우주를 내 안에 담다

인천만수고, '달별대(천문교실)' 준공식 개최

인천만수고등학교(교장 이해경)에서는 지난 5월 24일 천문교실인 달별대 준공식을 개최했다. 달별대는 학생들이 전문 분야 탐구와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립한 천문교실로, 카시오페이아(안드로메다 공주의 어머니) 별자리의 순우리말인 '달별'에서 이름을 따왔다.

'달별'은 'W'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사계절 관측할 수 있어 육안으로 북극성을 찾을 때 활용되는 길잡이 별자리로도 사용된다.

달별대는 전임 유석형 교장(현 교육과학연구원장) 재임 시에 시작된 만수고 속인 사업으로, 유석형 전 교장과 이해경 교장의 노력에 힘입어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선거구 유권자 국회의원, 오홍철 인천광역시의원, 동부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받았고, 학교 자체 예산을 대용 투자해 약 1년간 사업을 진행한 끝에 2017년 5월 천문교실 환경 조성을 완료했다.

인천 남동구 관내 거점 천문교실로 운영될 달별대는 구경 250mm 반사 망원경 3대, 굴절 망원경 4대(구경 100mm 1대, 60mm 3대), 태양 망원경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신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만수고에서는 향후 달별대를 성운, 성단, 행성, 위성, 혜성 등을 관측하고 천체사진을 촬영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천체 관측 행사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인천대공원, 잠수전, 소래산, 소래 구수지역 등 자연 생태체험 공간과 연계한 테마형 자연탐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From the Earth to Space!'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준공식은 장수권 정와 활동, 반디는 활동, 생태 달밭으로 지역사회의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인천만수고 학생들이 천문과학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구와 우주에 대한 학생들의 경량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천만수고등학교 시청각실과 달별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인천시의회 이강호 부의장, 동부교육지원청 박윤국 교육장, 교육과학연구원 유석형 연구원장, 인근 학교장 등 지역사회와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인천만수고 학생회 일원과 코스모피아(천체관측동아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성황리에 개관식을 마무리했다.

인용성 기자 as@



작은 메시지, 큰 임팩트

유형여중, 60초 Power Speech 실시

유형여자중학교(교장 정두원)에서는 5월 25일 미래 핵심역량 인재 양성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모토활동을 통한 소통·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60초 Power Speech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언어,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자신들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했다.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돼 자기 생각을 전달했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떨림이 가득했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자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전달하기 시작했다.

참가자의 발표가 끝난 때마다, 학생들은 환호와 큰 박수로 친구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박모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굳은 언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바른 언어생활의 태넵포인트 지점으로 삼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친구들의 발표를 지켜보았던 또 다른 2학년 박모 학생은 "친구들이 발표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특히 언어 표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평소 나의 언어습관에 대해 되돌아보게 됐고 고운 말 바른 말 사용하는 습관을 다져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자기 생각을 전했다.



유형여자중학교(교장 정두원)에서는 5월 25일 미래 핵심역량 인재 양성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모토활동을 통한 소통·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60초 Power Speech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언어,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자신들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했다.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돼 자기 생각을 전달했다.

인용성 기자 as@

안전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맞손

인천안남중, 계산1파출소 등과 업무협약

인천안남중학교(교장 최정규)는 5월 25일 인천계 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북인천중학교와 공동체 협력 치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인천안남중학교 최정규 교장, 북인천중학교 원동재 교장,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이규중 소장과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협력 치안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안남중학교가 관내 북인천중학교, 서운중학교, 북인천중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밝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별화 그리기 봉사활동' 사업에 계산1파출소가 참여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속해서 등하길 안전 활동을 강화해 상 호 유기적인 협력 치안을 통해 범죄 요인 사전 제거 및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길 만들기 사업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안남중학교 최정규 교장은 "서로 협력해 계양 지역 밝은 마을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토요일에 진



인천안남중학교(교장 최정규)는 5월 25일 인천계 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북인천중학교와 공동체 협력 치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인천안남중학교 최정규 교장, 북인천중학교 원동재 교장,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이규중 소장과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협력 치안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인용성 기자 as@



가족의 소중함 가득 느껴진 시간

부원여중,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

부원여자중학교(교장 임창식)는 5월 19일 18시부터 22시까지 70명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를 개최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청소년 감동캠프는 4번째 실시되는 행사로 '부모와 나'를 주제로 해 학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날 감동 캠프는 부원여중 오케스트라의 앙상블과 밴드 공연으로 시작해 가벼운 레크리에이션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한 뒤 '희망, 사랑의 글쓰기, 새록새록'의 순으로 진행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부모들은 "바쁜 일상 속

에서 가족 간의 부족한 대화의 시간을 채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새록새록에서 한희진 학생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해하며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저를 걱정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임창식 교장은 "3년째 진행되는 이 행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있고 지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돼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용성 기자 as@**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주세요!!!

1. 화끈하게 먹어요!
2. 감칠맛나게 먹어요!
3. 순하게 먹어요!

낙지볶음

낙지전골

낙지찜

낙지볶음

낙지전골

낙지찜

모든 메뉴 포장

낙지요리 전문점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71, 1층 (숙련동) 축현초교 정문앞

예약문의 (032)834-7740 단체석 및 단체주최장일비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1,000원부터

낙지전골

낙지찜

낙지볶음

낙지전골

낙지찜

모든 메뉴 포장

낙지요리 전문점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71, 1층 (숙련동) 축현초교 정문앞

예약문의 (032)834-7740 단체석 및 단체주최장일비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71, 1층 (숙련동) 축현초교 정문앞
예약문의 (032)834-7740 단체석 및 단체주최장일비

834-7740